

# 국내산 강황 산업화 '청신호'

### 농진청, 제조 기술 표준화로 오늘 업체 기술이전 통해 식·의약 소재로 개발키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 강황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산 강황의 간 건강 효과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제조 기술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1일 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식·의약 소재로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황 뿌리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작물로, 체온을 높이고 지방의 축적을 억제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산 강황은 특유의 향이 나며 병충해가 적다. 또 여러 해 동안 재배하는 외국산과 달리 4월경 파종해 첫서리가 내릴 즈음인 12월 초 수확하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변이가 적고 기능 성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외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과 판로 확보 등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6년과 2019년 국내산 강황의 지방산 억제 효과를 밝혔고, 이번에는 국내산 강황의 지방산 예방 원료 제조 공정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성분을 추출할 때 온도와 시간, 건조 방법 등 커키노이드가 열에 파괴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국내산 강황에 맞춘 제조 공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했다.

참고로 기존 연구에서는 세포·동물 실험을 통해 국내산 강황이 간세포 등이 손상됐을 때 증가하는 지수(ALT, AST)를 약 62.0% 줄여주고, 중성지방은 최대 49%, 나쁜 콜레스테롤 최대 85%까지 줄여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기술 이전은 농촌진흥청이 국내산 특용작물인 강황의 간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표준화

된 제조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산업화까지 성공함으로써 국내산 강황 산업 활성화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수입 강황 위주의 건강식품 시장에서 저평가된 국내산 강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물론, 국내산 특용작물의 인식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해 국내산 강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고, 천연 의약 소재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국내산 강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강황 재배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외국산과 차별화된 국내산 특용작물의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강황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날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전, 공기법발전사, 민간발전사 등 전력산업 관계자 화상접속자 3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1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개최했다.

## 국내 전력산업 동향·최신기술 공유

### 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내 전력산업 동향과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전력산업 관계자의 연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날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전, 공기법발전사, 민간발전사 등 전력산업 관계자 화상접속자 3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1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은 이날 대회는 탄소 중립 2050 실현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송실대학교 임성훈 교수의 '한류기 적용을 고려한 분산전원 연계된 배전계통 보호계전 기술'을 시작으로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력산업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또한 진행됐으며, 현대건설(주) 이재현 상무 등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경기그린에너지(주) 부장 임봉규 등 12명이 공사 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고, 두산퓨얼셀(주)에게 공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박지현 사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설비 분야에 있어도 안전을 위한 새 검사기법 개발과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특성에 따른 검사·진단 기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책임 있는 역할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날 3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우 경영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신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활동할 기술자문단과 '청년목우(Young Cattle Raiser)' 서포터즈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한우 경영 청년 농업인 육성·신기술 현장 확산 도모

### 농진청 축산과학원, 기술자문단·청년목우 위촉식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날 30일, 한우 경영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신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기술자문단'과 '청년목우'를 위촉했다.

기술자문단은 사육, 경영, 번식, 개량, 질병 등 5개 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청년목우 홍보 지원단은 청년 선도농과 거점 지역별 청년농 9명으로 구성했다. 기술자문단과 청년목우 홍보 지원단의 활동기간은 2년이다.

청년목우는 신기술의 현장 보급 확대와 기관 우수 연구 성과 홍보에 나선 예정이다. 청년 선도농의 영농 정착 과정 및 영농 승계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지역별 청년농의 관계망(네트워크) 조성에도 힘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자문단과 청년목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청년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축산 관련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러 더 많은 청년농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자문단으로 위촉된 강원대학교 박병기 교수는 "기술 자문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청년 농업인 사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 해결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병영 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기술자문단과 청년목우의 활동으로 한우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확산이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8월,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지역 농촌진흥기반을 선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 성과공유 워크숍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지난날 29일, 30일 부안, 남원에서 진행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올해 전북도 내 마을기업은 106개 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지자체는 마을기업의 안정화와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마을기업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마을기업 사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4회, 특화교육 5회, 컨설팅 30회, 간담회·현장교과외회 등 일련의 유기적 프로그램 수행으로 집체, 맞춤형 역량강화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올해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과정교육(특화교육), 집중역량강화컨설팅, 온라인마케팅 운영 마을기업 사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온라인마케팅시각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했고, 매년 기본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성과를 사무장과 대표 서로공유하며 안정된 일자리로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도의회 농산경위

### 초청 농정간담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날 29일 농업·농촌·농협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 지역농축산물 제공, 농업인 월급제 도입 확대, 비 산품종 개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만 전북 농업인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예산수립으로 환원한 비정확성이 되어주시는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전북도의회는 전북농협과 함께 농업·농촌·농업인 복원이라는 180만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농촌마을 녹색공간

### 재창출 사업 올 첫 실시

### 전북농협, 소양 하분토 찾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녹색공간 재창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지난날 30일 이진산 전북농협 본부부장, 유해광 소양농협 조합장 등이 '농촌마을 녹색공간(Green Space) 재창출 사업' 대상마을인 소양면 하분토마을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농촌활력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성사업이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마을 녹색공간 재창출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9개 마을에 각 1,500만원씩 지원하는 2021년 시범

정재호 본부장은 "살고 싶은 농촌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환경보호 방안 안배, 어르신들이 불편해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모여서 마을 사업을 논의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지역별 대표음식·식재료 정보 '책 속에'

### 농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 지원 종합가이드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공공급식에서 지역 먹거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향토·전통 음식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지역 대표음식·식재료 종합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특산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별 대표음식을 급식 등에 활용토록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지역 대표음식을 소개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대표음식은 공공급식에서 직접 조리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지자체 육성 음식, 역사 및 문화적으로 해당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가공식품과 직접 활용이 어려운 메뉴는 선정에서 배제했다.

지역별 대표음식으로는 서울의 설렁탕 부산의 돼지국밥, 대구의 누른국수, 인천의 꽃게탕 광주의 애호박찌개, 대전의 구죽도토리묵 등 347개가 선정되었다. 가이드에는 음식 사진과 더불어

각 음식에 얽힌 이야기, 음식에 사용된 지역별 특산 식재료와 간단 조리법을 함께 소개하는 등 재미 있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채웠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홈페이지(school.eat.co.kr)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공공급식 분야 급식 메뉴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홍보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